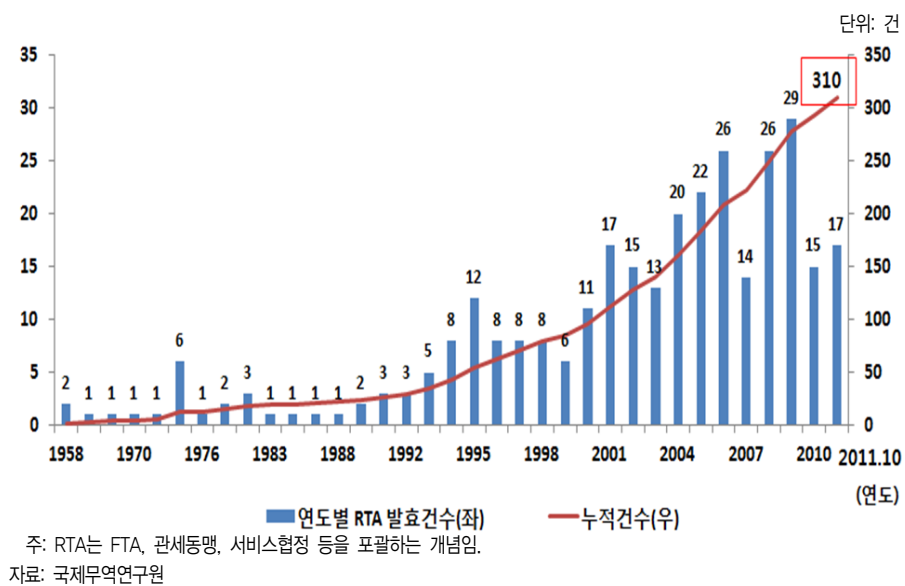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비롯하여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 다자 간 및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체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에서는 세계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추이와 세계 경제블록(Economic block)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1 세계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추이



지역무역협정(RTA)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Customs), 공동시장(Common Market), 단일시장(Single Market), 경제공동체(Economic Community)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들 간에 체결하는 지역간 경제통합이다. 2011년 10월 말 현재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건수는 총 310건으로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8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비스협정은 92건, 개도국간特惠협정이 15건, 관세동맹이 22건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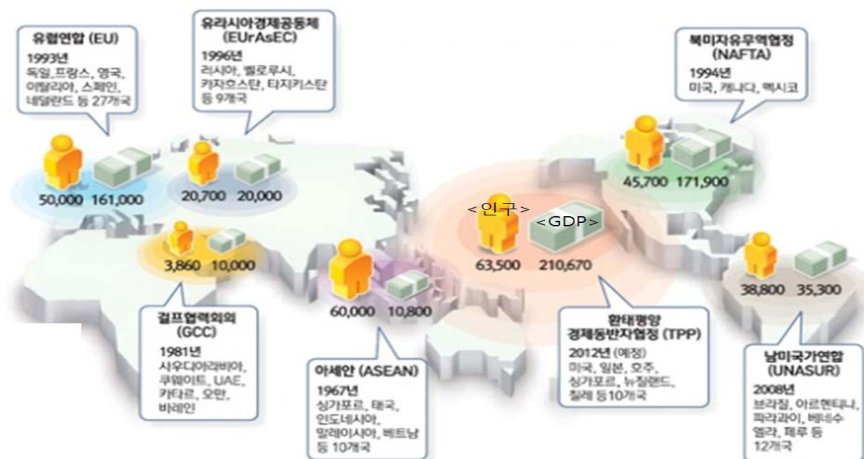
현재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에는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아세안(ASEAN) 등이 있다. 유럽연합(EU)의 가입국은 27개국으로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16조 1,000억 달러에 이른다. EU는 특히 경제블록 최초로 단일통화인 유로를 도입해 가장 긴밀한 통합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1994년 1월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가 상호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발효되었다. 경제규모는 17조 2,700억 달러 수준으로 규모면에서 EU를 앞서고 있다. 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캐나다와 멕시코도 참가의사를 밝혀 NAFTA와 TPP가 결합한 경제블록이 출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이 가입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도 주요 경제블록으로 분류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표로한 자유 무역협정으로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동식물검역,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등 자유무역협정이 포괄하고 있는 주요 부문들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가하는 TPP는 경제규모가 21조 670억 달러로 주요 경제블록 중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세계 경제블록 현황

단위: 만 명, 억 달러



자료: 서울경제신문, 2011년 11월 14일 기사 인용.

참고자료

국제무역연구원,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현황”, 2011.10.

서울경제신문, “TPP부터 EAU까지...경제영토 넓히자. 총성없는 전쟁”, 2011.11.14.

작성자: 윤종열, 이정희.